



한국관상지원단 소식

2024 상반기 제21호

발행 한국관상지원단

편집 한국관상지원단 사무국 (우)28166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생명5로 283, 1동 803호(미라클 오피스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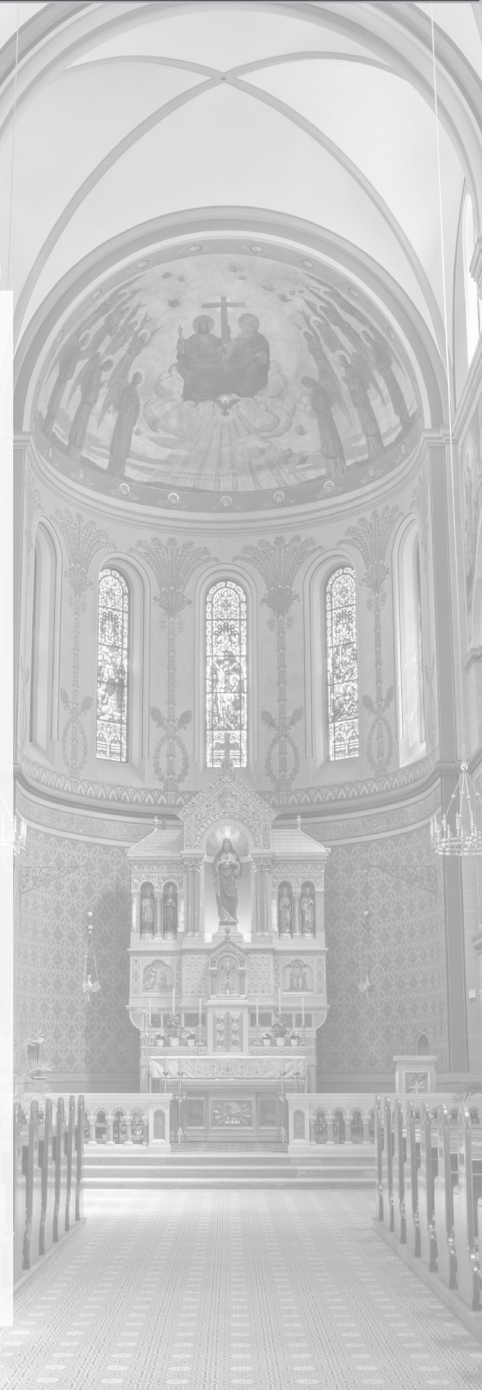
Tel_ 043-238-1968 홈페이지_ www.centeringprayer.or.kr E-mail_ koreacontout@naver.com

천주의 성모 마리아 : 평신도 관상 생활의 모범

[Mary the Mother of God: A Model of Lay
Contemplative Life], 토머스 키팅/이청준

오늘은 관상의 여정에서 최고의 모범이신 성모님에 대해 말해 보겠습니다. 물론 성모님이 유일한 모범이라는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성모님께서는 모든 면에서 보석처럼 반짝반짝 빛나십니다. 우리들 대부분은 빛나는 재능을 한두 가지씩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모님을 바라보노라면 성모님은 모든 면에서 반짝이십니다. 성모님은 유쾌한 분이십니다. 성모님의 사례에서 많은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와 신앙의 위대한 원리들의 원형으로서 그녀가 의미하는 바는 실로 엄청난입니다.

관참으시다면, 성모님과 그리고 성모님에 대해, 소박한 방식으로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처할 수 있는 거의 모든 상황에서, 심지어 나쁜 상황에서도, 그곳에서 성모님을 발견할 수 있음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성모님께서는 우리보다 앞서서 우리와 공유할 수 있는 많은 경험을 지닌 채,





그리고 이미 성공적으로 다음 세상으로 건너간 사람에게나 있을 법한 연민을 갖고 그곳에 계시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 죽은 후에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살아 있는 동안에는 너무 많은 한계와 결점을 가지고 있어서 누군가가 우리를 사랑한다는 것 자체가 놀라운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첫 번째 예를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14~15세의 어린 소녀 마리아가 있습니다. 그녀는 유대 관습에 따라 이미 요셉과 결혼했습니다. 우리는 이 멋진 남자에 대해 잘 모릅니다. 당시 유대인들의 관습은 결혼한 후에도 여전히 몇 달간은 부모님 집에서 살았습니다. 여자들은 남편의 집으로 들어가 살기 전까지는 부부관계를 갖지 않았지요. 그래서 마리아는 자신의 일을 하며 요셉과의 삶을 준비하고 있었지요.

그런데 갑자기 어딘가에서 천사가 나타나 말했습니다. “안녕.” “축복을!” “은총이 가득한 이여, 기뻐하여라.” 그것은 꽤나 좋은 인사입니다. “주님께서 너와 함께 계시다.” 이 말을 듣고 마리아는 몹시 당황했다고 합니다. 이어서 천사는 그녀가 아이를 낳을 터인데, 그 아이가 장차 메시아가 되어 야곱 집안을 다스릴 것이라는 놀라운 소식을 전합니다.

아! 이거 정말 큰 사건입니다. 아직 아이인 그녀가 맞게 될 일대 사건입니다. 사람들의 관심을 받게 되겠지요. 그녀는 몹시 당황했지요. 그리하여 마리아는 천사의 말에 어떻게 답할지를 몰랐습니다. 그래서 신중하게 말합니다. “저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이 물음의 의미를 완전히 이해하려면, “예”라고 대답했을 경우 어떤 결과가 생길지 봅시다.

우선, 그녀는 오늘날 상황에서는 어느 모로 보나 최소한 ‘미혼모’가 되겠지요. 우리는 지금, 육화의 신비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이 상황이 어떻게 비칠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에너지 센터, 혹은 ‘본능적인 행복 욕구’ 중에서 한두 가지 혹은 세 가지가 공격받겠지요. 이러한 본능적인 행복 욕구는 어린 시절에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녀는 그것들을 결코 행복의 추진력 혹은 하느님의 대체물로 만들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의식이 자리 잡은 순간부터 신적 일치를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성장하면서 겪게 되는 모든 어려움의 원인이 바로 이 신적 일치의 결핍에 있습니다. 우리가 하느님 안에 있는 참 행복을 하느님이 아닌 다른 대체물에서 찾으려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하느님은 참된 안전이시며, 참자유이시고, 참사랑이시고 무한한 사랑이십니다.

천사의 초대가 그녀에게 제시한 것은 바로 유대인 여인으로서 모든 안전을 포기하라는 것이었습니다. 혼인은 매우 중요한 일이었고, 혼인이야말로 진짜 안전이었던 것입니다. 그녀는 결혼이라는 안전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이 임신으로 그 안전을 잃게 된 것입니다. 의로운 사람이었던 요셉이 간음한 여자와는 혼인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달리 말해 이 임신 소식이 요셉을 어떤 상황으로 내몰겠습니까? 요셉이 이 아이의 아버지인 것처럼 보이게 만들었겠지요. 그런데 그때는 여자가 남편 집에 들어갈 때까지는 배우자와 성관

계를 갖지 않는다는 공통된 합의가 있었던 때였습니다. 그러니 그 사건은 유대 관습에 대한 요셉의 성실성 혹은 충실성에 의문을 품게 만들었을 것입니다. 둘째, 요셉이 아버지가 아니라면 당연히 마리아가 간음했다는 의미가 되겠지요. 요셉은 이런 일이 벌어지리라는 것을 알고 그토록 힘든 시간을 보냈던 것입니다. 요셉이 평판 나쁜 사람이 되느냐, 아니면 마리아가 그렇게 되느냐 하는 문제였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평판 나쁜 동네가 되겠지요. 제자들 중 한 사람이 “나 자렛에서 무슨 좋은 것이 나올 수 있겠소?”(요한 1,46)라고 한 말을 기억할 것입니다. 사실 나 자렛은 살기에 썩 좋은 곳은 아니었습니다.

자신이 앞으로 어떤 사람이 될지에 대한 천사의 거창한 설명을 듣는 마리아의 머릿속에는 이런 생각들이 쏟아집니다. 그리고 마리아는, 자신에게 제공되고 있는 허울 좋은 영광을 통해 인생의 현실적인 문제들을 직시했습니다. 그녀는 미혼모나 간음녀로 알려지는 일을 겪어야 할 터였습니다. 그리고 늘 친척들이 집에 찾아오는 작은 마을에서, 이 사실을 다른 사람들도 곧 알게 될 터였습니다. 그리고 이 신비로운 탄생의 그림자는 그 이유와 함께 아마도 평생 그녀를 따라다닐 것입니다. 그녀에게는 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을 터였습니다. 말하자면, 예수가 어떻게 해서 생긴 거야? 요셉이 율법을 거스른 것일까? 아니면 마리아가 요셉을 두고 간음을 저지른 것일까? 이것이 소위 말해서 ‘이중 속박(딜레마)’입니다. 사실 이것은 하느님께서 영적 여정에 진지하게 임하는 사람들에게 항상 취하시는 전형적 과정입니다. 아무런 해결책이 없는, 일견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에 놓임으로써 우리는 새로운 의식 차원으로 밀려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우리는 모든 실재를 새로운 시각으로 인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성적 시각에서 보면 조정의 여지가 없는 이 대립 상황이, 이성적 시각이 아닌, 더 높은 차원의 시각에서는 해결점이 주어집니다. 높은 차원의 시각에서는 그 두 가지를 대립이 아닌 보완의 관계로 봅니다. ‘이중 속박(딜레마)’이란 서로 반대되는 두 가지 선(善)이 우리를 향한 하느님의 뜻 혹은 우리에게 중요한 무언가로 보여서 어느 것을 택해야 할지 결정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합니다. 그래서 탁구공이 탁구대 위를 왔다갔다 하듯이 격렬한 혼동의 시

기를 겪게 됩니다. “결혼을 해야 할까? 수도자가 되어야 할까? 천사에게 ‘예’라고 수락하고 요셉과 그 모든 안전을 잃어야 할까? 천사에게 ‘아니오’라고 거절하고 하느님의 뜻을 거부하는 게 낫지 않을까?”

이것은 참 힘든 상황입니다. 성모님을 너무 열심히 흉내를 내지 말라고 조언하



고 싶군요. 이분은 위험한 여인입니다. 진짜예요! 여러분이 같은 상황에 처하게 된다면, 훌륭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훌륭할수록 더 많은 시련이 따를 것입니다. 하느님께서서는 우리를 신적 생명, 즉 하느님의 본질, 순수한 사랑으로 더 깊이 변화시키려고 끊임없이 노력하시는 것 같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천사가 마리아에게 제안한 계획, 즉 마리아가 메시아의 어머니가 되는 프로그램에 마리아의 본능적 욕구가 얼마나 상충되는지 아시겠지요? 첫째로, 안전의 결핍입니다. 아마도 그녀는 요셉을 잃게 되겠지요. 요셉은 의로운 사람입니다. 아마 그녀와 이혼하려 하겠지요. 마리아는 애정/존중의 욕구를 상실하였습니다. 자기 부모가 자기를 어떻게 생각할지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녀가 누구에게 이 신비를 예기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믿어는 줄까요? 그들이 믿는 다 하더라도, “나는 하느님의 어머니입니다.”라고 말하는 것은 허영심이나 교만이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중 많은 사람- 혹은 여기 계신 여성분들이 이 문제에 부딪히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마침내 그녀는 자기 삶의 모든 통제권을 잃게 되었습니다. 마리아와 천사의 대화 내용을 통해 우리는 다음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적어도 모든 시대를 통해 교회 교부들은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곧, 마리아는 하느님께서 그녀가 동정녀가 되기를, 그리고 동정녀로 남아 있기를 원하신다고 생각했고, 요셉도 이에 동의했으리라는 것입니다. 이는, 마리아가 자신의 삶에서 하느님의 뜻이라고 이해하고 식별했던 모든 것이 모두 하느님에 의해서 완전히 쓰레기 통에 버려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 그녀는 계속 자신의 판단을 믿을 수 있을까요? 그녀는 하

느님께 동의했으니 자신의 삶에 대한 통제권을 더 이상 갖지 못하게 되는 걸까요? 자신이 해야 한다고 생각한 일을 하느님께서서는 원치 않으셨으니 말입니다.

이와 똑같은 딜레마가 영적 여정을 가는 우리 개인의 삶 안에서 가족문제, 직장문제, 성소문제 등을 통해 가끔씩 일어납니다. 그것은 우리의 영적 잠재력을 최대한 발전시키기 위해 하느님께서 가장 애용하시는 패턴입니다. 상황이 발생한 뒤 하느님의 놀라운 계획을 간파하게 만드는 이성적 확신이 아무리 크다 하더라도, 그 상황 안에 머물면 어찌할 바를 모르는 고통을 억제하거나 완화할 수 없습니다. 천사는 매우 다정하게 말합니다. “너는 메시아의 어



머니가 될 것이다. 그분께서는 하느님의 아드님이라 불리실 것이다.” 이로써 그녀는 무엇이 되는 겁니까? 그녀는 그것이 자신을 무엇으로 만들지에 대해 한번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마리아는 그것이 그녀의 어머니와 친척들, 특히 요셉에게 가져올 온갖 어려움들을 생각했지요.

마태오 복음에서 우리는 요셉이 굉장히 심란해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는 무얼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는 의로운 남자였습니다. 율법에서는 간음한 여인을 치워버리라고 했습니다. 그는 그 일을 개인적으로 처리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에게 십자가였습니다. 그것은 곧 요셉 자신이 그리스도의 수난과 죽음과 부활에 미리 동참하는 일이었습니다. 그것은 실제로 마리아를 잃는 일이었고, 이것이 요셉에게는 가장 큰 것을 잃는 일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도, 마리아와 함께 한 어린 시절이나 마리아에 대한 어린 시절의 신뢰를 잃는 것이 예수님 다음으로 가장 큰 손실입니다.

마리아는 새로운 하와입니다. 새로운 원형이 된 셈이지요. 하와는 가족인 우리 인류를 뱀에게 안내했습니다. 마리아는 우리 인류 가족을 그리스도께 안내하며, 성령 안에 있는 모든 이들의 어머니가 되십니다.

성령께서는 우리 삶에 들어오실 준비가 되셨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는 우리가 안전, 힘/지배, 애정/존중의 본능적 가치와 과잉동일시하는 일에 맞서십니다. 어린 시절, 이 본능적 가치들은 거세지고 과도해졌습니다. 그때에는 우리가 참행복이 무엇인지를 몰랐고, 행복에 대한 본능적 이상 혹은 희망의 상징들을 엉뚱한 곳에서 찾으려 했습니다. 그리스도교 전통에서 환상(착각, illusion)이라고 일컫는 것은 ‘행복이 어디에 있는지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탐욕(concupiscence)은 참행복 대신 잘못된 것들을 얻으려 하거나, 참된 가치를 대신하여 좋은 것들을 너무 많이 얻으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교 전통에서 원죄의 최종 결과라 일컫는 것은, 참행복이 무엇인지 안다 해도, 의지가 너무 약해서 그것을 추구하지 못하는 것(나약함, weakness)을 말합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전해드리려 하는 것이 바로 이러한 통찰입니다. 이 통찰은 향심기도 수련을 통해 자연스럽게 얻어지기도 하지만, 향심기도의 개념적 배경을 통해서도 얻을 수 있습니다. 향심기도의 개념적 배경은, 원죄의 결과에 대한 진단을 현대 심리학의 용어로 살피고 있는 〈사랑에로의 초대〉에 담겨 있습니다. 이 책은 인간 삶에서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를 일반적인 신학적 원칙 대신 심리학의 용어로 자세히 설명해줍니다.

여기 한 소녀가, 인류가 그토록 애타게 기다려온 한 소녀가 있습니다. 성 베르나르도는 이에 대해 정말 훌륭한 설교를 하였습니다. “온 인류가, 세상을 떠난 이들이, 산 이와 죽은 이가 모두 마리아의 피앗(fiat)을 기다립니다. 그녀가 ‘예’라고 할까요, ‘아니오’라고 할까요?”

마리아는 이 질문을 받았을 때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녀의 신중함에 주목하십시오. 그녀는 “도대체 이 일이 어떻게 이루어진다는 건가요?”라고 받아칠 충분한 이유가 있었



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그렇게 말하지 않고 이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저는 요셉을 남자로서 알지 못하고, 당연히 다른 남자도 알지 못할 터이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애석하게도 천사는 마리아에게 “내가 이 딜레마를 해결해 주겠다.”라고 미리 말하지 않았습니다. 천사는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마리아를 그 ‘딜레마’에 남겨 두고 떠났습니다.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을 길이 전혀 없고, 그녀의 가족과 요셉이 지켜야 할 율법을 떠올릴 때, 마리아의 인생 전체에 드리워졌을 영원한 그늘을 상상해보십시오— 작은 동네, 말 많은 동네에서. 그리고 자신의 삶에 대한 모든 계획, 성령이 자신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식별하는 능력은 완전히 꺾였습니다. 즉, 그녀는 분명 인간적 차원에서 파괴되었으며 철저한 허무로 떨어졌습니다. 하느님의 무한한 신뢰 속으로 도약하는 길만이 남아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마리아의 ‘피앗’, 마리아의 자기 승복은, 그녀의 삶 전체와 삶에 대한 기대, 행복에 대한 관념—그것이 거짓 자아의 거짓된 가치에 물들지 않았다 하더라도—을 모두 내려놓는 일입니다. 그녀가 가졌던 모든 것, 될 수 있었던 모든 것, 할 수 있었던 모든 것을, 그 한 단어 ‘피앗’에 쏟아붓습니다. 이 ‘피앗’이라는 단어는 그녀의 전존재와 그녀의 모든 기능을 담고 있는 상징이라 할 수 있습니다. ‘피앗’은, 궁극적인 신비, 즉 신비이신 하느님께 승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알 수 없는 미래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우리 중 많은 사람이 이 알 수 없는 미래를 받아들이어야 합니다. 사실 어떤 점에서는 모든 이가 이것을 받아들이어야 하겠지요.

남자에게든 여자에게든 결혼은 정말 중요한 결정입니다. 나는 한 번도 결혼한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내가 아는 한, 결혼은 알 수 없는 미래를 향한 도약입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알 수 없는 미래가 다수인 것 같습니다. 엘리자베스 테일러는 여덟 번 결혼하지 않았나요? 그녀는 ‘알 수 없는 삶’을 얼마나 많이 산 것일까요! 당신이 수도 생활에 입문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서는 마음에 들지 않는 15명의 사람과 결혼하는 셈입니다. 여기 수도자들이 계신 것 같아요. 그렇죠. 사실 15명 이상일 수도 있습니다! 나는 1900년대에 한 수도원에서 80명과 살았습니다. 만일 여러분에게 선택권이 있다면, 이 사람들을 선택하지는 않겠지요. 그러므로 그것은 알 수 없는 삶에 승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제 생활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주교가 가끔 바뀌죠, 그렇죠? 주교는 은퇴하고 죽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교는 완전히 다른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은 미지의 세계로 가는 여정입니다. 최선을 다하려면 승복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지 미리 알려주지 않으시는 하느님을 신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느님께서서는 미래를 알려주지 않으십니다. 그것이 계약입니다. 일단 ‘예’ 하고 승낙하기 시작하면, 그다음부터 알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해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안심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마리아가 우리 모두를 감동시키는 부분이 바로 이것입니다. “마리아의 ‘피앗’을 본받아라”라고 말하는 것도 그래서이지요. 그것은 “좋아요, 참아내겠습니다.”라는 말보다 훨씬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그것은 “제가 여기 있습니다. 당신께서 원하시는 대로 제게 하십시오.”라는 의미입니다. 저는 어디든지 갈, 혹은 아무데도 가지 않을 준비가 되었습니다. 무언가가 될, 혹은 아무것도 되지 않을 준비가 되었습니다. 교회 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혹은 수도원에 은밀히 머물 준비가 되었습니다. 그 두 가지를 모두 할 준비도 되어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마리아의 삶에서 가장 중요했던 이 사건을 들여다봅시다. 이 사건은, 하느님의 뜻에 대한 자신의 이해와는 다른, 알 수 없고 예측할 수 없는 미래로 그녀를 불러들였습니다. 그녀는 그러한 미래를 미리 전적으로 수용했습니다. 어쨌든 마리아는 ‘예’라고 대답했습니다. 참으로 다행입니다. 마리아는 딜레마 속에서 하느님께 ‘예’라고 대답하는 사람의 본보기입니다. 우리가 영적 여정을 가고 있다면, 아마도 여러 차례, 그리고 아마도 극적인 방식으로 이 딜레마를 경험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영적 여정을 가고 있다면 그 핵심은 관상 기도입니다. 말하자면 우리 기능을 하느님이 일하시는 방식으로 내적으로 변화시키는 것이지요.

천사는 현실적으로 말합니다. “엘리사벳에게 가 보아라. 그녀는 아이를 잉태하고 있다.” 얼마나 사려 깊습니까? 이로써 천사는 마리아에게 그 모든 것에서 벗어날 기회를 준 겁니다. 특히 호의적이지 못한 환경에서 임신한 경우라면 신속히 다른 곳으로 가는 게 좋을 것입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친척 엘리사벳을 방문하러 서둘러 갔습니다. 임신 사실을 전혀 모르거나 혹은 의심하기 시작하는 어머니와 친척들과 요셉이, 그들의 딜레마를 처리하도록 내버려 둔 채 말입니다.

그녀가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위대한 승복을 통해 의심할 여지 없이 그녀는 모든 딜레마의 해결책으로 나아갔습니다. 그 해결책은 더 높은 차원의 믿음을 향한 도약입니다. 이러한 도약에는 하느님에 대한 지식의 확장이 수반됩니다. 그리하여 그 딜레마를 더 높은 시각, 즉 대립이 해소되는 하느님의 관점에서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질문을 철회하게 됩니다. 우리가 제기하는 모든 질문은 우리가 하느님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분을 아는 새로운 차원으로 나아가면, 질문은 없어집니다. 적어도 그 차원에 적응하는 동안에는 질문이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적응한 다음에는 그다음 차원으로 부르심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또 다른 딜레마, 더 많은 질문이 생기겠지요. 그런 다음 해결점이 주어지고, 우리는 또 질문을 철회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모든 질문을 철회하고, 즉시 엘리사벳을 만나러 갔습니다. 더 이상 자신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고, 좋은 일을 하러 길을 떠납니다. “엘리사벳이 아기를 가졌고 도움이 필요하니, 내가 가야지.” 달리 말해, 은총의 자발성입니다. 일단 은총이 새로운 차원에서 자리잡으면, 자신을 경축하기 위해 자신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밖으로 나아가, 하느님께 부여받은 내면의 힘에 비례하여 다른 사람을 섬기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느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하느님은 바로 그런 분이십니다. 그분께서는 당신 자신 안에 머물지 않으시고, 놀라운 피조물들을 온갖 종류로 모든 곳에, 점점 더 많이 창조하십니다. 그리하여 우주는 팽창해갑니다. 삼위일체의 숭고한 관계 안에서도 각각의 위격은 자신 안에 살기보다는, 서로 안에서 삽니다. 하느님께서서는 물론 (당신 존재로 말미암아) 모든 성별을 초월하십니다. 그리고 존재를 넘어서는 존재(우리에게는 단지 개념일 뿐입니다)이신 하느님께서서는 그저 존재하십니다.-그것이 무슨 뜻이든 말입니다. 그리고 이 '존재성'은 모든 것을 꿰뚫고 있으며, 모든 피조물을 그 본성에 따라 한없이 부드럽게 다룹니다.

그러므로 하느님께서서는 물론 이 멋진 피조물인 마리아를 사랑하십니다. 하느님께서 그녀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시는지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겟세마니의 예수님을 제외하고는, 아마도 마리아가 가진 딜레마가 모든 시대를 통틀어 가장 컸을 듯합니다. 겟세마니에서 예수님은, 하느님의 아들이자 죄와 동일시되고 하느님으로부터 고립되라는 소명을 받은 것으로 느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그것을 어떻게 처리하겠습니까? 바오로는 말합니다. “하느님께서서는 죄를 모르는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하여 죄로 만드셨습니다”(2코린 5,21). 그리고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어떤 식으로든, 아주 개인적인 방식으로, 적어도 일시적으로라도 십자가 위에서 성부와의 관계를 상실해야 했음을 의미했습니다. 성부께서는 성자의 인생살이의 전부이셨고, 삼위일체 안에서 천주 성자의 모든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마리아는 불가능한 딜레마에 ‘예’라고 대답해야 했습니다. 곧 남자를 모르는 생리적 동정녀로 머물면서 하느님의 뜻을 받아들여야 했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하느님께서서는 그녀를 위해 불가능한 일을 행하셨으니, 그것은 그녀를 동정녀 어머니로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아무도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아는 한 그런 일은 다시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의 마지막 메시지는 이렇습니다: 우리가 어떤 불가능한 상황에 처해 있든, 어떤 딜레마에 빠졌든, 하느님께서서는 언제나 해결책을 갖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요구할 수는 없고 기다릴 수만 있습니다. 곧 모든 장애물과 장벽이 차례로 무너지기 시작하는 것을 기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무너뜨리지는 않습니다. 이 여정에서 장벽을 만나면, 우리는 그저 장벽이 무너질 때까지 거기에 앉아 있기만 하면 됩니다. 이것은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마리아의 반응은 매우 현실적이었습니다: “자, 이제 나는 하느님과의 관계에서 새로운 차원으로 변화되었습니다. 그러니 무엇을 해야 합니까?” “참된 신앙을 실천해야겠어요.” “그게 뭐죠?” 엘리사벳이 아기를 잉태하였으니, 기저귀와 요람과, 원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다른 물건들을 준비하는 데에도 도움이 필요하겠지요. 마리아는 그렇게 생각하고 엘리사벳을 시종들기 위해 찾아가십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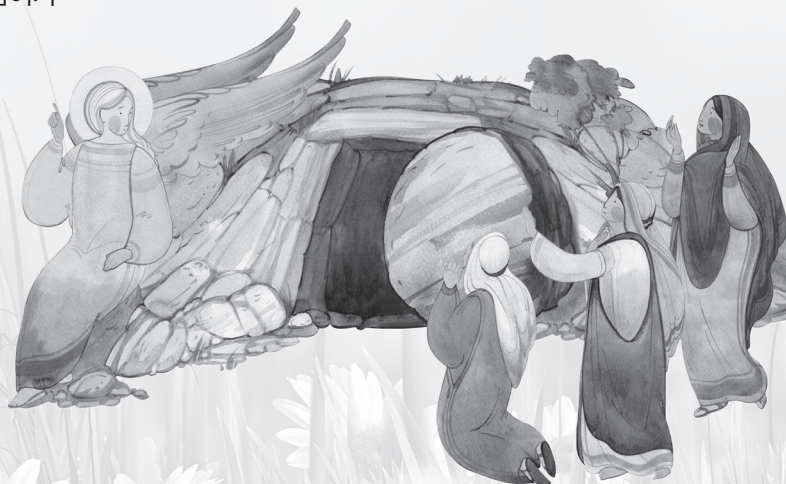
이것이 변화의 움직임입니다. 그것이 바로 ‘사목’입니다. 사목은 권위주의가 아닙니다. 사목

은 다른 사람을 지배하는 것이 아닙니다. 첫 번째 움직임은 하느님의 움직임입니다. 여러분은 가서 그들을 섬깁니다. 하느님께서 공기와 음식과 이 아름다운 행성 지구를 통해 밤낮으로 우리를 섬기시는 것처럼 말입니다. 아마도 하느님께서 의도하신 에덴동산이 바로 그런 곳이겠지요. 적어도 바깥 우주에서 보이는 지구의 모습은 바로 그렇습니다: 이 아름답고 푸른 행성. 흰 구름과 이 검은 배경 그리고 그 위의 모든 사람들은 아마 완전한 평화 속에 살고 있는 것처럼 보일 것입니다. 지구의 모습이 너무도 아름다워, 어떤 폭력도 그곳에 어울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우주 한가운데 이 작은 '공' 위에 있는 인류 가족을 볼 때, 생존을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할 이곳에서 전투와 전쟁, 폭력이 벌어지는 것은 미친 짓으로 보입니다. 우리가 아는 한 다른 행성에는 우리를 도와줄 생명체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하느님의 아들이 당신 태중에서 육신이 되셨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인간이 하나라는 직관이 그녀에게 내려왔습니다. 그분은 모든 인간을, 가족으로서 집단적으로 취하신 것이 아니라 개별적으로 취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의미에서 여러분과 나는 영적으로 그녀의 태중에 있었습니다. 우리도 성령의 영향 아래서 살아가고 있다는 전제에서 말입니다. 마리아는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의 어머니이십니다. 그리스도는 온전히 마리아의 육신의 결실입니다. 그리하여 하느님께서 마리아 안에서 육체적으로 현존하십니다. 마리아 안에서, 그녀의 몸은 그리스도의 몸이 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마리아의 공간 속으로 들어가, 그것을 그녀의 것으로 만드십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바로 그곳에서 그녀는 하나의 원형이 됩니다.

그녀는 새로운 시대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 모두는 그녀의 태중에 있었고, 그녀의 태중에 있습니다. 성 아우구스티노는 이를 매우 강력하게 표현합니다. "우리는 하늘에 있는 하느님의 나라에서 충만한 영광에 이르게 될 때까지 현세에서 살면서, 복되신 동정 마리아의 태중에 살고 있습니다."

좋아요, 이렇게 멋진 분께서 서둘러 산을 넘어가 십니다. 분명 그리고 혼자서 친척 엘리사벳의 집에 들어가십니다.(그녀는 세례자 요한 외에는 다른 아기를 잉태한 적이 없습니다.) 마리아가 그 집에 들어가면서,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안녕하세요!" 이 인사로 태중에 있는 세례자 요한을 축성하기에 충분합니다. 다시 말해, 마리아는 아무 말도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이 모든 변화를 가져온 것은 그녀가 어떤 사람이었나 하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았던 달



레마와 하느님께 대한 그녀의 전적인 자기 승복과 신뢰를 통해, 하느님이 그녀 안에 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리아에게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이렇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무엇을 말하느냐?’보다 ‘무엇을 행하느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행하느냐?’보다는 ‘우리가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떤 사람인가?’보다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드러내고 있는 바로 그분’이 중요합니다.

이것이 전교(transmission)의 신비입니다. 말하자면, 설교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설교가 복음을 전하는 방식 가운데 하나이긴 하지만, 전교에 비하면 상당히 피상적입니다. 전교(transmission)에서는 말이 필요없습니다. 우리는 인생의 모든 세세한 부분에서 하느님의 사랑과 온유함을 표현해야 합니다. 그것이 아무리 지루하고 평범한 것이라 하더라도 말입니다. 하느님을 드러내는 것은 우리의 행위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행위를 유발하는 동기입니다. 그리고 그런 동기를 가진 사람은 타인의 삶을 변화시키고 그들의 삶에 그들의 삶에 하느님을 모셔다드리려고 합니다. 그것이 궁극적 전교(transmission)입니다. 사람들 안에 하느님의 사랑과 활동이 존재한다는 것을 일깨워주는 것입니다. 엘리사벳 방문 때 마리아가 한 일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와 동시에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변화시킬 수 있었던 것은, 엘리사벳이 그녀의 태 안에서 아기가 뛰노는 것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녀는 “당신은 여인들 가운데 복되시며, 당신 태중의 아기도 복되십니다.”라고 외쳤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전에 엘리사벳의 이 말을 들어본 적이 있기를, 그리고 날마다 같은 말을 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하느님께서 여기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주목하십시오. 매우 중요합니다. 하느님께서 마리아가 이 엄청난 딜레마를 뚫고 지나가도록 내버려 두십니다. 그것이 어떻게 해결될지 미리 알려주시지 않은 채 말입니다. 하느님께서 이 딜레마를 유일무이한 방식으로 해결하십니다. 사실 그 방식은 그 딜레마가 해결될 수 있는 유일한 방식이었습니다. 마리아가 동시에 동정녀 이면서 어머니가 되는 것이었죠. 그것은 인간사에서 전혀 알려지지 않은 일이었기에 그녀는 그



것을 전혀 예측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승복하였고, 하느님께 말씀드렸습니다. “보십시오, 이것은 문제입니다. 당신께서 처리하십시오!” 그리고 그녀는 사랑스럽게 그것을 그분 무릎 위에 올려놓습니다. “저는 요셉을 괴롭히지는 않겠어요. 그리고 당신이 부여하신 동정에 대한 약속을 어기지 않을 것입니다. 일이 어떻게 될지는 모릅니다. 당신께서 이런 일이 ‘일어나리라고’ 말씀하시면 저는 ‘믿음의 도약’을 합니다. 당신께서는 이루어주실 수 있으십니다.” 하고 말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동정 성모가 되셨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그것은 전혀 예상 밖의 해결책이었습니다. 이는, 우리 개개인의 딜레마에는, 아무리 해결이 불가능해 보이더라도 반드시 해결책이 있음을 의미합니다.

마리아의 사례는, 여러 딜레마를 수 차례 반복해서 겪는 관상가들에게 좋은 본보기가 됩니다.

우리가 승복할 때 어떤 확신이 따라오게 됩니다. 즉, 외적 사건이나 내면의 은총에 의해 확신에 차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 당신께서 올바른 선택을 하셨습니다.” 예기치 못한 엘리사벳의 찬송은 마리아에게, 자신에게 닥친 문제에 대한 엄청난 확증으로 다가왔을 것입니다. – 사실 그 신비에 대한 엘리사벳의 깨달음은 요셉과 마리아의 부모조차도 감지하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마리아는 “아, 내가 옳았나보다”라고 느꼈던 겁니다. 이 느낌은, 몇 차례 딜레마를 깊은 차원에서 겪은 뒤에 찾아오는 좋은 기분입니다. 그래서 그녀는... 하느님께서 때때로 그녀를 안심시키셨습니다. 일상생활과 딜레마가 압도하는 상황에서 그러한 안도감은 가끔씩만 찾아올 따름입니다.

그렇다고 놀라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머리와 가슴에 새기세요! 그러면 여러분은 진정으로 복되신 어머니를 본받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본받게 되는 것은 물론입니다. 성모님께서 우리를 그분께 인도하시고 여러 가지 방식으로 그분을 보여주십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마리아께서는 성령의 배필로서, 우리에게 성령의 영감에 전적으로 자유롭고 책임 있게 승복하는 방법을 가르쳐주십니다.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성령은, 우리의 일상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사목을 지원해 주십니다.

나는 여기에 교회의 가장 큰 사목인 결혼과 양육의 사목을 포함시키고 싶습니다. 내 말에 반론을 제기하는 분도 계시겠지만, 혼인성사는 밤낮으로 24시간 동안 진행되는 일임을 엄숙히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다른 성사들은 아무리 훌륭하더라도 어떤 의미에서 늘 일시적입니다. 세례는 개인의 삶 전체에 영향을 미치며, 성찬례는 우리를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혼인성사는 결혼 생활에서 행하는 모든 일에서 하느님의 사랑과 하느님의 운유함을 나누는 것을 의미합니다. 커피를 따르고, 아이들을 걱정하고, 부부관계를 맺는 모든 일에서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것은 24시간 성사입니다. 그러므로 개인적으로 양육은 너무도 중요합니다. 부모가 부모의 일을 하지 않으면, 자녀인 우리는 아마도 평생 그 결과를 감수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 안에 사랑이 있다

노영신 목사(소일교회)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 ‘진정한 나는 누구인가?’ ‘나답게 산다는 것은 무엇인가?’ 고요한 곳에 머무를 때면 어김없이 내 속에서 툭 튀어 올라오는 소리였다. 마치 지금까지는 전혀 나답게 살지 못했다는 듯이. 사실 이런 목소리가 나를 성숙시키고, 나를 성찰하도록 만드는 소리라고 여겨왔다. 2003년 에니어그램을 만나기 전까지는. 여전히 진정한 나다움을 찾는 나, 내가 원하는 삶을 꿈꾸는 나는 그 소리를 ‘집착’하고 있는 거였다. 그 소리 뒤에 숨어 있는 나는 오히려 ‘텅 빈 나’였고, ‘진정한 내가 없는 것’이었다. 내가 나다움을 찾고, 집착할수록 그만큼 내가 없음을 뼈아프게 깨닫는다. ‘누군가에게 보여지고, 드러나는 나’만 있었을 뿐. 나는 나에게 몰입되어 살아가는 줄 알았는데, ‘내게 몰입하고 있는 나’를 누군가가 알아봐 주기를 바랐던 것! 그저 타인의 눈을 의식한다는 차원이 아니라, 단 한 사람이라도 내 영혼의 깊이를 알아주고, 내가 나에게 쏟고 있는 뜨거운 열정에 탄복해 주기를 갈망하고 있다는 것! ‘애정과 사랑, 존중’에 대한 욕구의 결핍이 끝도 없는 목마름으로 이어진다. ‘나다움을 추구하는 것’이 나의 죄성이었구나! ‘나다움의 나’는 진정한 내가 아니기 때문이다. 나다움을 추구하는 내가 좋고, 흡족했던 것이구나. 안타까운 나르시시스틱한 상처다. 사실 ‘나’는 없었기 때문에, 나는 계속해서 ‘진정한 나’에 쫓기고 나를 찾아 헤매던 것이었다. 그래서 내 거짓자아의 유혹은 ‘정체성’이었다. 에니어그램은 이것을 내게 일깨워 주었다. “아버지 저 사람들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저 사람들은 자기네가 무슨 일을 하는지 알지 못합니다.(누가복음 23:34)” 거짓자아의 나는 내가 무슨 일을 하는지 과연 알지 못했다.

오릇한 사랑. 온전한 수긍. 진정한 관심. 전적인 이해. 내 거짓자아는 이런 것들을 평생토록 찾아 헤매도록 나를 지배해 왔다. ‘나는 어디에서, 누구에게, 내가 그토록 원하는 것을, 내가 원하는 남다른 방식으로 받을 수 있단 말인가?’ 쉽게 말하면 ‘사랑’받고 싶었던 거다.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내가 원하는 밀도와 강도로. 그 ‘구원자’를 향한 기대가 나를 더욱 비참하고 초라하게 만들어왔음에도, 이를 거둘 수가 없었다. 그래서 인지, 나는 더욱 ‘사실은 내가 받고픈 돌봄’의 에너지를 누군가를 향해 쏟아냄으로써

내 마지막 낭떠러지에서 버티려 했다. 누군가가 붙잡혀지고 가여워지는 순간, 나는 그것에 사로잡혀 나를 잃어갔다. 주위 사람들은 그런 나를 기가 막히게 더 잘 알아 나에게 요구가 많아지기 시작했고, 내가 숨이 막히다고 느끼게 되는 순간, 도망치고 싶다고 혼자 중얼거리게 되는 순간들이 더 자주 찾아왔다. 그때 왜 거절하지 못했나. 이것은 과하다고, 그렇게까지 하기는 어렵다고, 왜 한마디도 하지 못했나. 그렇게 ‘못다한 말들’이 쌓인 채로, 나는 지쳐가고 있었다. 그러나 누구도 아닌, 자발적으로 내가 그렇게 허용하고 있었으니, 스스로 자초한 일이 아니고 무엇인가, 하는 깊은 한숨이 다시 깊어졌다. 이런 악순환은 꽤 오랫동안 지속되었고, 그러면서 ‘구원자’를 향한 집착과 기대는 더욱 강력해졌다. 누군가, 제발, 나를, 구해줘! 지긋지긋한 ‘사랑 타령’이었다.

이 얼마나 어리석고 불행에 찬 함정인가! 이런 거짓자아의 실체를 뼈아프게 직면하며 고달픈 시간이 흐르고 있을 때 즈음, 2009년 향심기도를 만나게 되었다. 어쩌면 향심기도 이전과 이후로 나의 삶이 나뉘어질지 모른다. “아,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누가 이 죽음의 몸에서 나를 건져 주겠습니까?(로마서 7:24)”던 바울의 탄식과 같이, 아무리 애쓰고 노력해도, 나도 어찌지 못하는 내 메커니즘과 패턴의 반복으로 더 절망하고 무기력해지던 바로 그때, 향심기도는 그 힘을 스르륵 놓는 길로 나를 안내했다. 그리고 이 패턴이 토마스 키팅 신부님이 말씀하신 나의 집요한 ‘행복 추구 정서 프로그램’이라는 것을 더욱 분명히 알게 되었다. 의식 속의 나의 알아차림만으로는 더 깊고 무궁무진한 심해의 찌꺼기들을 건져 올릴 수 없음을 확, 인정하게 되었다. 에너지그램을 통해 나의 거짓자아의 실체를 낱알이 알게 되었다면, 이제 그 거짓자아로부터 어떻게 자유로워질 것인가, 하는 문제에 대한 열쇠를 향심기도를 통해 찾았음을 알게 되었다.

15년이라는 시간 동안 향심기도를 하면서 알게 된 가장 두드러진 것은, 내 삶에 있어서 나를 가장 많이 덮고 있던 무의식적 정서가 ‘자책감’이라는 사실이었다. 30개월이라는 가장 최초의 기억으로부터 전 생애를 걸쳐, 내 정서의 밑바닥은 언제나 ‘자책감’으로 물들어 있었음이 언젠가부터 의식화되기 시작했고 이를 분명하고도 또렷이 목도하게 되었다. 내가 자초한 일들, 내가 잘못된 선택, 나로부터 기인한 불행. 그렇게 나는 스스로에게 ‘죄인’이라는 딱지를 부여한 채, 나도 모르게 스스로를 부정하고 있었다. 그 누구도 원망해 본 적 없이, 나는 그저 나를 원망했을 뿐이었다. 그리고 그런 나를 나의 ‘정체성’으로 삼았다. 나와 가까운 이의 이야기가 나의 이야기가 되고, 그의 이야기가 내가 쏘아 올렸던 화살처럼 여겨지는 데자뮈가 이어질 때면, 나는 내 상처의 바다에 빠지고 물들지 않기 위해 몸부림쳐야 했다. ‘내사’하지 않기 위해, ‘내사’하고 있는 나를 두 눈 부릅뜨고 지켜봐야 했다. 향심기도는 그것이 내 노력으로는 되지 않



음을 인정하게 했다. 내가 원하는 ‘구원자’가 ‘사람’에게서는 온전히 얻을 수 없음을 내려놓게 하면서, 하느님이 내게 그런 ‘구원자’이심을 승복하고 나를 내맡기도록 인도했다. 나는 그렇게 낭떠러지에서 그냥 떨어지기로 했다.

아직도 집중피정이라던지, 일상 속 기도가 깊어질 때라던지, 그럴 때 어김없이 올라오는 것은 ‘자책감’이다. 내 안에 사랑 받을만한 무언가가 없다고 느끼는 ‘근원적 결핍감’이 자책으로 올라오는 걸 테다. 그럼에도 그 때문에 그리 슬프진 않다. 지금도 나는 하느님이 주도하시는 신적치유를 받는 여정 중이고, 그리고 동시에 그 무엇으로도 대체할 수 없는 ‘근원적 사랑’이신 하느님이 내 안에 계심을 알기 때문이다. 내 자신의 비참함 속에서, 그래도 빛나는 하느님의 신성이 내 안에 이미 있음을, 이제 믿는다. 그리하여 나는 이전보다 훨씬 더 잘 받을 수 있게 되었고, 전혀 하지 못했던 거절을 이제는 조금씩 할 수 있게 되었으며, 내가 참으로 받고 싶었던 그 돌봄에 대한 욕구를 있는 그대로 끄덕일 수 있게 되었다. 사적이기만 하던 내가, 공적인 시각과 관심으로 이 세계를 바라보게 되었고, 세상의 부정의와 차별, 혐오와 배제를 향해 정당하게 분노하고 행동하는 에너지가 절로 생겼으며, 피조물의 신음 속에 생태적 위기가 우리 모두의 죄악임을 가슴 아프게 절감하게 되었다. 내 개인적 영적여정이 교회의 영적여정과도 만나, 함께 가고 있음도 안다. 그리고 아직 내게 남아있는 과제가 ‘죽음’임을 또한 안다. 나는 이것을 어떻게 관통해 나갈까. 나는 아직은, 여기서 멈추지만, 다시 하느님께서 내 안에 활동해 가실 것을 또한 믿는다.

이 침묵의 시간에 하느님과 친밀하게 만난다. 나도 알지 못하는 어두움의 숨겨진 기억 속에서 내 안의 하느님이 근원이 되신다. 이것이 믿기지 않는 한, 나는 이 여정을 갈 수 없다. 하느님의 현존과 활동, 그것만으로 나는 충분하다. 넘치도록 충분하다.

애쓰지 않아도, 내 안에 사랑이 있다.

미처 깨닫지 못한다 해도, 내 안에 사랑이 있다.

나는 사랑을 찾았고, 근원을 만났으며, 여기에 뿌리를 내린다.

나에게는 되돌아갈 집이 있다.

“하느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 안에 있는 사람은 하느님 안에 있고 하느님도 그 사람 안에 계십니다.(요한일서 4: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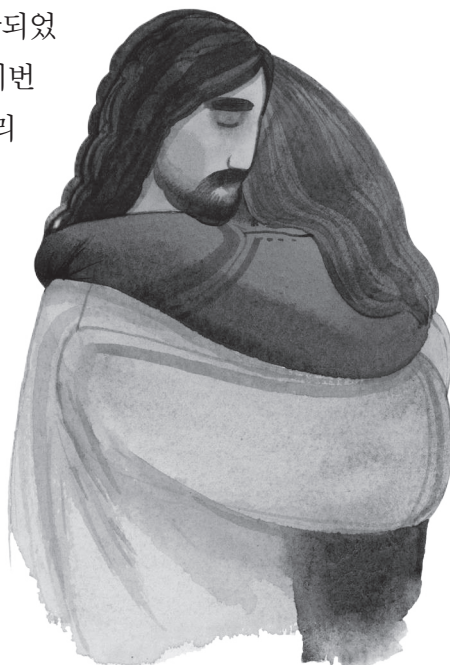
저는 팬찮아요~~!!

박천희 수녀

“나는 하느님을 위하여 그 무엇도 그 누구도 어떤 상황이라도 두려워하지 않고 나의 모든 것을 바쳐 내 주님을 사랑하리라.” 이는 내가 수련기 때 가졌던 주님께 대한 나의 진한 신앙고백이다. 그 누구보다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사랑을 독차지하리라는 아무진 의지로 극기하고 보속하고 배상하고 참아받고....물론 내식대로이지만 말이다. 게다가 이미 시간도 많이 흘러간 옛이야기이다. 그래도 주님을 갈망하는 나의 의지에는 변함이 없다. 그런데 ‘주님을 위해서라면야....그 무엇도’라는 내 강한 결의와는 상관이 없이 달갑지 않은 어떤 일들이 생겼을 때 마음이 편치 않을 뿐만 아니라 알 수 없는 무게감이 나를 지배한다는 느낌은 어쩔 수 없었다. “이게 뭐지!.....뭐지.....!” 머릿속이 온통 희뿌연 안개 속 같다. 주어진 환경, 바쁜 계절, 그에 발맞추느라 정신없이 지내며 심리적 압박 그 짓눌림의 정체에 더 이상 마음 쓰지 못하고 방치된 채 9박10일간의 향심기도 피정에 들어갔다.

신부님의 노련하신 타종으로 첫 번째 향심기도가 시작되었다. 종소리는 나를 아주 편안하게 해주었고 “수녀님에게 이번 피정은 아주 중요해” 하시던 원장 수녀님의 응원도 메아리 되어 안이하게 쉬는 피정하려는 내 마음을 다잡을 수 있게 해주었다. “이제 그 무엇에도 애쓰지 말고 집착하지 않고 다 떠나보내야지” 하는 생각 사이로 한 장면이 떠올랐다. 창원 ‘마음의 집’이다.

우리 수도 가족들이 어르신들을 모시며 운영하던 요양시설이다. 한 층만 수도 가족들이 사도직을 수행하며 생활공간으로 이용했는데 당시 지역사회의 필요와 교구의 초청으로 20여년간 하느님의 이 부르심에 충실히 응답해왔다. 그런 가운데 원장 수녀님은 이 시대에 절대적이며 참으로 필요한 수도자의 본질을 사는 기도공동체 설립에 부르심을 받고 그 삶을 지양하며 세 명이 모



여 그 삶을 시작했다.

작지만 교구의 인정을 받은 완전한 숫자로 그 소명을 살고자 이탈리아 총원의 승낙을 받고, 요양시설을 접었다, 하느님의 섭리로 예산에 거처가 정해졌다. ‘성심의 프란치스코 수녀회’ 소속 ‘라우다또 씨 관상공동체’ 이름으로..... 마침 두 분 수녀님이 충남 예산에 가시려고 준비를 끝내신 터다.

원장 수녀님께서 “혼자 괜찮겠나?” 안쓰러움 반, 염려 반으로 내게 하신 말씀이다. “에이~그럼요~~저는 괜찮아요~~!!! 걱정마시고 다녀오세요” 예산 갈 때마다 짐을 싣고 운전을 해야 하는 수녀님과 행정 및 실무관계로 동행하시는 원장 수녀님의 장거리의 고된 나들이 출발 전. 선택의 여지 없이 그 큰 집에 남겨지는 나를 앞에 두고 있는 상황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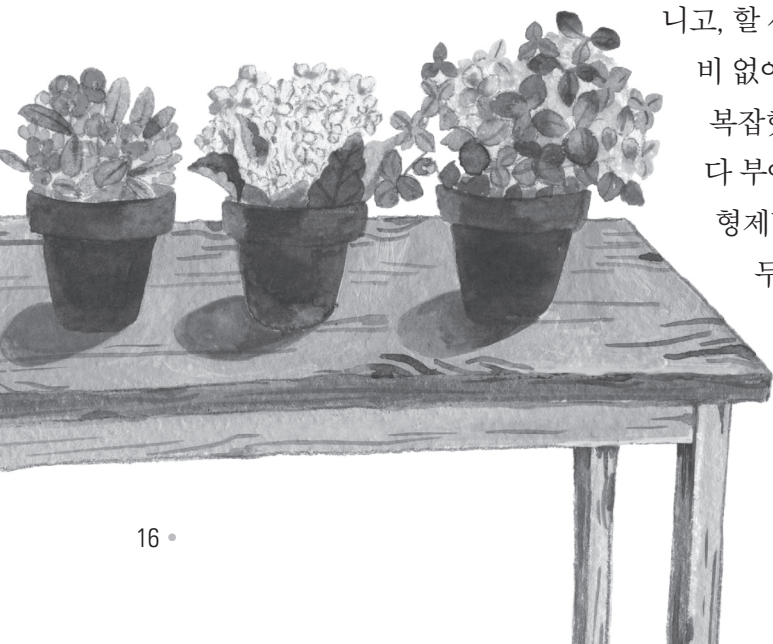
지금은 대전교구 소속으로 예산 수철리에 주택 하나를 임시 수녀원으로 정착해 살고있지만, 그때는 창원살이, 예산살이를 3년 이상 왔다갔다 왕복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었다. 그때마다 원장 수녀님의 매번 같은 나에 대한 염려스러운 물음에 나의 대답도 늘 한결같았다. 그런데 별로 중요해 보이지 않는 이 장면이 향심기도 첫 번째 시간에 떠올려 주신 것이다.

“뭐지?” 이유가 분명 있을텐데...그런 와중에 때가 되었는데 신부님의 강의에서 그 답을 구체적으로 찾아낼 수 있었다. 나의 거짓 자아가 그 주범이었다. 내 강한 의지만큼 강화된 거짓 자아가 날개 단 듯 활동한 것이었다. 알고 보니 참으로 끔찍하다.

오래전의 일이다. 부랑인 시설에 있을 때였다. 나는 18세의 앳된 소녀가 가족으로부터 버림받고 사회에서 고립된 채 수년간 당뇨로 고생하다 기구한 삶을 마치고 세상을 떠난 딱한 소녀의 시신을 염을 한 적이 있었다.

난생처음으로 그것도 누구의 부탁을 받고 한 일도 아니고, 할 사람이 봉사자와 나밖에 없었기에 사전 준비 없이 엉겁결에 하게 된 것이다. 마음이 버겁고 복잡했다. 그 후 어떤 할아버지는 몸집이 큰 데다 부어서 입관이 불가능해 보였는데, 선종 봉사형제님은 사색이 되어 거의 역지로 그 일을 마무리했다.

오랫동안 장례 관련 일하고 봉사해오시던 그 형제님은 무섭다 하시며 그날로 장례 일선에서 떠나셨고, 하는 일 없이 입관 과정을 지켜보기만 한 나도 무



쉽고 힘들었다. 그 기억들이 잊혀지기 까지 시간도 제법 걸렸던 것 같다. 한 번은 자고 있는데 할머니가 돌아가셨다고 전화벨이 울렸다. 전화를 받고 그 어르신 방에 가려 하는데 막막했다. “얼른 가야지, 가야지.” 하며 마음을 가다듬고 숨을 고르며 계단을 내려가는데 무섭증이 갑자기 뒷덜미를 엄습해왔다. 그렇지만 아무에게도 그런 내색 없이 담담한 척해내었다. 또 한번은 할머니의 선종 소식과 함께 염하러 내려오라는 연락이 왔는데 얼른 나서는 사람이 없는 데다가 어떤 이는 무서워 못 한다고 하기에 내가 나서서 한 적이 있었다. 물론 나도 내키지 않았지만 나를 과시하고자 하는 욕구 충족으로 아무렇지 않은 듯이 한 것이다. 사실 무서운 사람은 하지 않아도 된다는 관면 조치가 있었기에 굳이 앞장설 필요도 없었는데 말이다. 이렇게 나는 나를 드러내어 인정받고, 선배라는 체면 그 위신 때문에 술선수범하듯 아무렇지 않은 듯이 했던 것이다.

거짓 자아의 강력한 활동의 부추김으로 말이다. 영혼의 구원, 하느님 사랑과 그리스도와의 일치, 그리고 복음의 가치와 그분을 따르는 성소에 부합하는 것이라 합리화하고 자만하면서 말이다. 죽은 사람은 말이 없다. 그런데 살아있는 사람의 거짓 자아 활동은 시신보다 무섭다는 것을 나의 심리적 고통으로 겪은 많은 어려움과 난관이 일러 준다. “혼자 괜찮겠냐?”는 수녀님의 물음에 “괜찮다.”라고 하면서도 마음은 그렇게 무겁고 원인 모를 두려움에 짓눌려 있었던 것은 그 거짓 자아가 깊이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내밀하고 은밀한 나의 부끄러운 민낯을 포장하여 살아가니 진전이 있을 리 만무한 것이다. 나는 용기 있어 피곤하고 지쳐도 독수리처럼 비상하는 사람으로 드러내고, 인정받고자 하는 정서적 행복 프로그램이 뿌리 깊이 자리하고 있었던 것이다. 쓰레기 같은 것을 나의 방어기제로 삼아 여기까지 왔지만, 아~얼마나 큰 하느님의 사랑인가! 복잡하고 다양한 거짓 자아의 그 시끄러운 소리들을 이렇게 일깨워 알아차리게 해주시다니! 무의식중에 나를 정화하시어 죄 중에 있으면서도 마음을 비울 내적 힘을 옷처럼 덧입는 은총을 아이러니하게 허락하시다니! 그리하여 마음이 날아갈 듯 가벼워지는 치유로 당신의 그 크신 자비를 체험케 하시다니! 이 얼마나 놀라운 하느님 현존의 사랑인가! 나의 심각한 거짓 자아의 활동과 불완전한 심리적 체험들을 통하여 하느님께서 나를 틈새도 없이 철저히 완벽하게 사랑하고 계심을, 그래서 지금 내가 그분 안에, 또 여전히 눈물겹도록 부족한 채로 있는 내 안에 계신 그분께 이토록 큰 신뢰로 있을 수 있는 것이다. 은총과 거짓 자아를 넘나들면서 나는 더욱 큰 용기로 그 어둠을 인정하고 흐르는 물에 내려보내듯 놓을 것이다. 이제는 이기심에서 신적 사랑으로 부르는 초대에 하느님께 맡겨드림으로 일치와 변화에 응답하고자 한다.

이 모든 일들을 통하여 주님 찬미받으소서!



9박 10일 피정을 참석하고....

장희숙 루시아

떠나기 하루 전까지 뭐가 그리 바쁜지 동동거리다가 짐을 못꾸려서, 가서 한국옷 예쁘니 사서 입고, 화장품도 한국 것이 좋다는 데 거기서 사서 쓰지.... 하고는 입고 있는 옷 하나하고 속옷만 몇 개 챙기고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는 한국에 왔습니다.

뜻밖에 집중 피정에 참석을 허락받은 저는 “하느님이 그동안 수고했으니 휴가를 주신거지...”라고 생각하면서 가볍게 피정에 왔습니다.

그러나 오던 날부터 일이 틀어지기 시작했어요, 저녁을 안 먹던 제가 저녁을 먹고 위가 뒤틀리고 아프더니 이튿날부터 기도 시간에는 온갖 배의 소리 향연이 시작된 겁니다.

“저녁을 먹어서 그럴겠지..” 하며 한 끼를 건너 뛰어보고, 음식을 가려도 보고, 적게도 먹어보고, 여러 가지를 하여 보았지만 배에서 나는 꾸르륵거리는 소리와 디톡스는 계속되어 같이 기도하는 시간에도 소리나는 배를 움켜 쥐고는 “주님 나 좀 살려 주세요”라며 마치는 종소리만 기다리는 꼴이 되었습니다.

이틀, 3일, 4일... 대침묵이 시작되어 어두운 마음으로 이거 그냥 되돌아가야 하는가를 생각하면서 아침 식사 후 발걸음을 십자가의 길로 향했습니다.

돌로 된 십자가의 길을 묵상하며 가다가, 제10처에서 멈추었습니다. 아무것도 없이 예수님만 커다란 돌 위에 서 계셨습니다. 10처는 옷벗김 당하심이어야 하는데 저항을 하거나 수치스러움을 가리려고 한다거나 하는 모습이 전혀 없이, 구부림이나 찌그러짐 없이 곧고 당당해 보였습니다.

그렇잖아도 요즘 내가 나의 어두운 치부를 보고 있으려니 마음은 너무 외롭고 죄송하고 쥐구멍이라도 찾고 싶었는데, 예수님은 옷까지 벗김을 당하시고도 반항도, 가리려고도 않으시고, 너무 편하게 거기 계셨습니다. 그동안 나를 괴롭혔던 내 어두움과 기대와는 너무 다른 모습에 당황해하며 다시 바라봅니다.

나는 내 자존심과 싸우고 하느님 일을 한다던 내게서 없어져 버린 하느님의 모습, 아픈 동생을 가르쳐야 한다고... 행복하길 바란다면 하였던 알량한 위로에서 상처받은 동생의 마음, 숨어있는 나의 교만과 오만을 봅니다.

갑자기 쏟아지는 눈물이 옆에 있는 의자에 앉아 새가 내 바지에 똥을 싸는지, 벌레가 물어뜯

는지도 모르고 흐느끼며 울었습니다.

그냥 다 내려놓으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냥 어린아이가 되어 하느님께 맡기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아주 작아졌을 때에 주님은 벗겨졌지만 아주 커다란 모습으로 계셨습니다.

다 벗겨진 저는 아무 부끄럼없이 주님 앞에 서서 헤벌적 웃습니다. 에덴 동산이 보입니다.

그곳에는 새와 동물도 같이 웃고 살아가는 아담과 하와는 부끄러움, 두려움도, 꾸밈도 없이
마냥 평화와 행복했을 것입니다.

신부님이 “너무 비워도 앓되니 채워봅시다.” 하신 말씀이 생각나, 이제는 매끼 빠지지 않고
끼니를 채웁니다.

세례자 요한의 말씀이 떠오릅니다. “회개하여라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늘나라는, 바로 내 안에, 내가 끊임없이 내려놓아 가며 회복해야 할 에덴 동산이었습니다.

그동안 예수님은 이미 내 안에 머무르며 나를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멀리 있는 것이 아닌 바로 내 안에서...

대침묵 중에 눈도 마주칠 수 없었던 중 식당에서 어쩌다 마주치던 여러분들의 눈길 속에서
천사님들을 봅니다 ...

가진 것보다 없는 것이 더 많은 이방인같은 저를 다정히 맞아주시고, 알게 모르게 배려해주
시고, 도와주시던 총무님, 그리고 자매님들 ..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을 만나서 너무 행복했습니다.

사랑합니다 !!

아무 준비 없이 도착한 제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섬세히 챙겨주시고 염려해 주신 강영숙 호
주 아녜스 자매님, 신부님 감사합니다.

또 눈인사 하나에도 온 사랑이 느껴지는 여러분 한분 한분 모두가 제게 천사님들이십니다.

음식을 준비해주시는 수녀님들의 손길도 역시 천사님들이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추신 : 9박 10일에 참석하신 장루시아 자매님은 현재 미국에서 거주하심.



향심기도 - 하느님을 뵈는 길

이상락 프란치스코

10여년전 향심기도를 처음 접하면서 불교의 명상과 유사하다는 생각을 했다. 일부에서는 이 단시비가 있다는 말도 들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업무광 선생의 테이프를 들으며 나름 열심히 해보려고 하다가 그만 시들해져 버렸다. 지인 중에서 향심기도에 굉장히 열심히 부부가 이혼하는 모습에서 더욱 관심에서 멀어졌다.

그러나 작년 2023년 사순피정과 대림피정에 오신 이청준 신부님의 향심기도 강의를 들으면서 특별히 신부님이 번역하신 “중독과 신적치유”를 접하면서 생각이 완전히 바뀌게 되었다..

아! 향심기도를 통해 중독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것이구나. 그동안 혼자서 자력으로 중독에서 벗어나려 애를 썼지만 될 수 없었고, 하느님께 전적으로 의탁해야만 가능한 것인지를 모르고 헛수고를 계속하고 있었던 것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한다는 말씀이 뼈저리게 느껴지며, 행복 정서 프로그램에 빠진 거짓자아에서 벗어나 참자아에게 숨어계신 하느님을 만날 수 있구나 하는 희망으로 기쁨이 느껴졌다.

집착을 버리고 마음을 비우면서 향심기도 수련을 계속해 간다면 내 마음은 더욱더 깨끗해지고,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신 대로 나는 마침내 하느님을 뵈을 수 있게 될 것이다.

행복하여라, 마음이 깨끗한 사람들! 그들은 하느님을 볼 것이다[마태오 5:8]

하느님을 뵈오며 일치하여 사랑이신 하느님을 체험하면, 난 타볼산에서 예수님의 거룩한 변모를 본 제자들처럼 하느님의 나라를 위하여 세상으로 내려와 십자가의 길을 기쁘게 걸어갈 수 있을 것이다...

끝으로 향심기도가 온세상에 보급되어, 세상의 모든 민족과 종교의 편견의 벽을 넘어 사랑으로 일치하는 하느님의 나라에서 모든 인류와 행복하게 살게 되기를 소망한다.

******(추신)이상락 프란치스코 형제님은 현재 캐나다 캘거리 '성안나 한인성당' 향심기도회 봉사자'이심.

향심기도 질의응답

이청준 프란치스코 하비에르 신부

2023년 안식년을 지내면서, 캐나다와 미국에서 교민들과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사순 시기에 캐나다의 ‘캘거리’와 ‘에드먼튼’, 미국의 ‘LA’와 ‘샌프란시스코 오كل랜드’에서 향심기도 연수를 가졌으며, 대림 시기에 캐나다에서는 캘거리 공동체와, 미국에서는 LA 공동체와 각각 3일간 피정을 가졌습니다.

관상지원단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좋은 일들은 성령께서 행하시는 일임을 굳게 믿습니다.

2023년 12월 LA 공동체 주최로 ‘테메쿨라 피정집’에서 3일간 향심기도 피정을 가진 후 저는 곧바로 귀국을 하였고, 2024년 초에 감사하게도 LA 성삼한인천주교회 내에 향심기도 모임이 형성되었으며 ZOOM으로 기도 모임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물론 캘거리 공동체에도 향심기도 모임이 새로 만들어졌고, 에드먼턴과 오كل랜드 지역에는 이미 기도 모임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LA 기도공동체가 첫 모임을 가진 후 저에게 보내온 회원들의 질문 내용입니다.

1. “매일 향심기도를 하고 있지만 내가 제대로 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다.”
2. “향심기도 중에 내가 정말 하느님의 현존 안에 머무르는 것인지 의구심이 든다.”

저는 위의 두 가지 질문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하고 답을 드렸습니다. 아래 내용은 저의 답변 내용입니다.

〈관계의 중요성〉

매일 향심기도를 하신다고 하니,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일단 향심기도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Just do it. 그냥 시간을 내어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향심기도는 무엇보다도 하느님과의 관계입니다. 방법 이전에 관계입니다. 말하자면 사랑을 나누는 관계, 우정을 키워가는 관계입니다. 관계에서 중요한 것은 시간을 내는 것입니다.



다.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고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느님을 만나기 위해 날마다 시간을 내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방법은 그다음 문제입니다. 향심기도를 하면서 “혹시 실수하면 어쩌나? 내가 기도를 잘못하는 것은 아닌지?” 걱정하는 것은 그다음 문제입니다. 일단 사랑의 하느님을 만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랑에 빠진 청춘 남녀가 데이트하는 것을 상상해보십시오. 데이트를 위해 시간을 내는 것이 먼저이며 방법은 그다음입니다. 설레는 마음으로 시간을 내어 연인을 만나러 갑니다. 어려운 상황이 생기더라도 만사를 제쳐놓고 연인을 만나러 갑니다. 연인과 함께 있는 시간이 행복할 따름입니다. “연인을 만나서 무슨 말을 할까? 어떤 행동을 취할까?” 하는 것은 그다음입니다. 사랑에 빠져들면 연인의 말과 행동과 패션, 모든 것이 다 예쁘게 보이고 사랑스럽게 보입니다. 사소한 실수조차 예쁘게 보입니다.

이처럼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느님께서도 우리를 까다롭게 대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감싸고 계시는 당신 현존을 우리가 정말 믿으며 내맡기는지, 우리 마음을 보십니까. 하느님의 사랑을 정말 믿고 있는지 그 마음을 보십니까. 방법은 그다음 문제입니다. 향심기도에서는, 하느님의 사랑 안에 머물고 하느님과의 우정을 일구기 위해 시간 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걸음마를 배우는 어린아이는 넘어지고 나면 또다시 일어서서 걷고, 또 넘어지기도 하고 그다음에 일어서서 다시 걷습니다. 그러다 보면 허리 힘과 다리 힘이 강해지면서 잘 걷게 됩니다. 걸음마를 시작하는 아기가 뒹뒹 걷는 것을 보는 부모님은 흐뭇해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느님 앞에 머물러 있는 우리도 실수할 수도 있고, 또 하느님 사랑에 빠져 있기도 합니다. 우리가 하느님 현존 안에서 기도드리고 있을 때, 하느님께서서는 우리의 잘못을 잡아내기 위해 눈을 부라리고 쳐다보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느님께서서는 시간을 내어 당신을 찾아오는 우리를 보시면서 흐뭇하게 여기실 것입니다. 날마다 하느님 사랑에 맡기고 하느님을 만나다 보면, 세월이 지나면서 우리는 서서히 성숙해지고 하느님 사랑에 길들여지게 됩니다. 걸음마를 하는 아기는 결코 포기하지 않고 계속 걷습니다. 우리도 결코 포기하지 않고 계속 하느님을 만납니다.

그러므로 조급한 마음을 가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향심기도를 쫓기지 않고 꾸준히 행하다 보면, 시간이 지날수록 성령께서 우리의 잘못을 서서히 바로잡아 주시고 성장시켜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다 보면 기도를 배웁니다. 기도가 기도를 가르쳐 줍니다. ‘기도를 행하는 것’이 최고의 기도 공부입니다. 기도를 잘 해야 된다는 강박관

념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경직될 필요 없습니다. 어린이와 같은 마음으로 성령께 의지하면 성령께서 책임지시고 우리를 인도해주실 것입니다. <마음을 열고 가슴을 열고>에 나오는 다음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활동은 부잣집에 입양된 아이에게 새 가정에서 어떻게 처신해야 할지 가르치는 능숙한 보모에 비견할 수 있다. 거리에서 데려온 아이가 우아한 잔치 식탁에 앉았을 때처럼, 우리는 올바른 식탁 예절을 배우고 실습하는 데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 거친 성장 배경 때문에 식탁에 흠문은 발을 올려놓는가 하면, 접시를 깨거나 무릎에 국을 었지를 수도 있다. 새로운 집에 적응하려면 태도와 행동 양식이 근본적으로 변화되어야 한다. 이 때문에 처음에는 보모가 강압적이고 지나치게 엄격한 사람으로 보일 수도 있다. 하지만 보모는 이것저것 가르치는 가운데에서도 늘 격려하는 것처럼 보인다. 결코 비난하거나 판단하지 않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초대하는 것 같다. 이처럼 향심기도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교육이다.” - <마음을 열고 가슴을 열고> 25쪽

〈관계를 바탕으로 한 방법〉

방법 이전에 관계가 중요하지만, 적당한 방법을 잘 활용하면 관계 발전에 도움이 됩니다. 이를 위해 다음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향심기도는 전략에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과 의 인격적 관계를 통하여 발전해 나가는 역동적 과정의 일부다. 동시에 자신의 기도와 삶의 방식에 어느 정도 적당한 조직적 요소를 가미하면 그 과정이 촉진된다. 그것은 마치 건강에 좋은 음식과 운동이 어린이의 신체 발달을 도와주는 것과 같다.” - <마음을 열고 가슴을 열고> 26쪽

향심기도의 핵심은 동의입니다. 동의란 하느님 사랑에 내맡기는 것입니다. 동의는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하느님을 믿으면서, 기도 중에 무슨 일이 일어나더라도 하느님의 신비로운 활동에 의지하면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향심기도는 하느님과의 소중한 데이트입니다. 먼저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한다면 저절로 방법을 배우게 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향심기도의 ‘네 가지 지침’을 살펴보시고, 향심기도 팜플렛을 차분하게 숙지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음을 열고 가슴을 열고>를 꾸준히 숙독하시고 공부하시면 됩니다. 기도하고 공부하시고, 공부하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방법의 중요성〉

위에서 설명한 관계의 중요성을 충분히 이해하고 깨달은 다음에는, 방법의 중요성을 배워서 실천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거룩한 단어를 사용하는 방법을 이해하는 것

이지요.

거룩한 단어의 사용법을 다음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째, “필요하다면 거룩한 단어를 떠올려야 한다.”

둘째, “필요할 때에만 거룩한 단어를 떠올려라”.

첫째, 향심기도는 ‘거룩한 단어를 내려놓고 그저 멍하니 있으면서 아무것도 행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거룩한 단어로 돌아가야 하는 줄 알면서도 돌아가지 않고 생각 속에 머물러 있는 것’은 향심기도의 금기사항에 해당합니다. 그러므로 동의를 갱신하기 위해 필요하다면 거룩한 단어를 떠올려야 합니다.

둘째, 향심기도에서는 거룩한 단어를 계속 반복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거룩한 단어를 계속 반복하는 것도 좋은 기도 방법이지만, 향심기도와는 다른 기도 방법입니다. 향심기도에서는 필요할 때에만 거룩한 단어를 떠올립니다. 물론 향심기도를 배우기 시작할 때에는 아무래도 거룩한 단어를 자주 떠올리게 됩니다. 생각이 떠오르면 끌려가기 십상입니다. 그러면 거룩한 단어를 떠올려야 하겠지요. 하지만 수련이 반복되면서 향심기도가 조금씩 자리잡혀 가면, 지나가는 생각에 끌려가지 않고 하느님 현존에 대한 동의를 유지하는 법을 서서히 배우게 됩니다. 말하자면 내주하시는 하느님과의 사랑의 끈이 점점 강화되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만일 생각이 지나가는 것을 알면서도 끌려가지 않고 하느님 현존에 열려 있게 되면 거룩한 단어를 다시 떠올릴 필요가 없습니다. 거룩한 단어는 필요할 때에만 떠올립니다.

사랑의 하느님 안에서 깊은 연대를 갈망하며 이만 줄이겠습니다.



2024년도 향심기도 피정계획

❖ 소개피정 · 후속강의 및 심화피정 · 집중피정 ❖

피정		일시	장소	봉사	연락처	신청자격
2박 3일 소개 및 심화피정		3월11일(월) 오후3시30분 시작 ~ 13일(수) 점심식사 후 마침	(논산) 씨튼 영성의 집	한국 관상지원단 교수진	010-3993-3800 043)234-1968	향심기도에 입문하실 분들 & 향심기도를 하고 계신 분들
		10월25일(금) 오후3시30분 시작 ~ 27일(일) 점심식사 후 마침				
기도회 봉사자 피정 3박4일		11월14일(목) 오후3시30분 시작 ~ 17일(일) 점심식사 후 마침				
9박 10일 집중피정		6월 19일(수) 오후 4시 등록 ~ 28일(금) 점심식사 후 마침				향심기도 3박4일 피정을 3회 이상 하신 분들
1일 소개 피정		4월6일 / 6월1일 / 10월 5일 토요일 9시 30분~ 16시	(서울 성북동) 씨튼 영성센터	사랑의 씨튼 수녀회	(02)744-9825	향심기도 입문하실 분/향심기도를 하시는 분들
1박 2일 후속 피정		1월 06일(토) ~ 7일(일) 7월 06일(토) ~ 7일(일) 12월 07일(토) ~ 8일(일)	(서울 성북동) 씨튼 영성센터	사랑의 씨튼 수녀회		향심기도 입문연수 및 피정 경험이 있는 분들
2박 3일 심화피정		3월1일(금) 오전 10시~ 3일(일) 오전 11시	(서울 성북동) 씨튼 영성센터	사랑의 씨튼 수녀회		향심기도를 하고 계신 분들
		8월 2일(금) 오전 10시 ~ 4일(일) 오전 11시				
		10월 18일(금) 오전 10시 ~ 20일(일) 오전 11시				
2박 3일 소개 및 심화 피정		7월 5일(금) ~ 7일(일)	(논산) 씨튼 영성의 집	사랑의 씨튼 수녀회 수녀	(041)733-2992	향심기도 입문 및 향심기도를 하고 계신 분들
3박 4일 심화 피정		5월 12일(일) ~ 15일(수)				
향심기도 2박 3일		8월 19일(월) - 21일(수)	(대구 사수동) 베네딕도 영성관	이청준 신부	010-3577-0639	향심기도를 하고 계신 분들
침묵 피정 과 향심 기도	예수부활 성삼일 전례	3월 28일(목) - 30일(토)	(울산) 세 예루살렘 공동체	왕영수 신부	010-5488-1239	향심기도를 하고 계신 분들
	성령강림 전례	5월 16일(목) - 18일(토)				
	예수성탄 전례	12월 22일(일) - 24일(화)				

❖ 월 침묵피정 ❖

피정	일시			장소	봉사	연락처	신청자격
1일 월 피정	3월	12일(화) / 23일(토)	오전 10시 ~오후4시	(서울 성북동) 씨튼 영성센터	사랑의 씨튼 수녀회	(02)744- 9825	향심기도를 하시는 분들
	4월	09일(화) / 27일(토)					
	5월	14일(화)					
	6월	11일(화)					
	7월	09일(화) / 27일(토)					



피정	일시			장소	봉사	연락처	신청자격	
1월 월 피정	9월	10일(화) / 28일(토)		오전 10시 ~오후4시	(서울 성북동) 씨튼 영성센터	사랑의 씨튼 수녀회	(02)744- 9825	향심기도를 하시는 분들
	10월	08일(화) / 26일(토)						
	11월	12일(화)						
	12월	10일(화) / 07일(토)						

※추신

1. 수녀원의 사정에 따라서 위의 일정과 시간이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2. 향심기도 모임 : 셋째, 넷째 화요일 오후 2시 ~ 4시
3. 향심기도 피정 : 두 번째 화요일 오전 10시 ~ 오후 4시

❖ 광주지부 월 쇠신의 날 ❖

피정	일시		장소	봉사	연락처	신청자격
월 쇠신의 날	1월 8일	매월 첫째주 월요일 오전 9시 ~ 오후 4시	(광주) 중흥동 성당	천정철 신부	010-3632- 0237	향심기도를 하는 모든 분들
	2월 5일			전영 신부		
	3월 4일			이준용 신부		
	4월 1일			이준용 신부		
	5월 13일			윤행도 신부		
	6월 3일			국방그라시아 수녀		
	7월 1일			국방그라시아 수녀		
	8월 5일			이청준 신부		
	9월 2일			미정		
	10월 7일			미정		
	11월 4일			친교의 날 성지순례		
	12월 2일			월 쇠신의 날 및 총회		

❖ 소그룹 기도모임 ❖

지역	장소	일시		연락처	전화번호
서울	씨튼 영성센터	셋째, 넷째 주 화요일 오후 2시 ~ 4시		김문희 엘리사벳	010-8917-4523
인천	만수 6동	화요일 오전 9시 30분		강경애 세실리아	010-4780-7867
	소래포구 성당	목요일 오전 11시		김순녀 루시아	010-2355-7722
	청라 성당	목요일 오전 9시 20분		김순이 아네스	010-2730-1433
	간석2동 성당	금요일 오후 8시		고선희 글라라	010-9577-2981
	서창2동 성당	목요일 오후 8시		임상희 아네스	010-9334-4934
경기	(남양주)마석 성당	① 화요일 오후 7시 30분		김동한 프란치스코	010-2801-1974
		② 목요일 오전 11시			
	*(고양)살림 교회	① 월요일 오후 7시 30분		김지호 목사	031)912-4930 010-5101-4935
		zoom 기도	② 화요일 오후 8시30분		
			③ 목요일 오후 8시		

지역	장소	일시		연락처	전화번호
경기	*(대한성공회) (안양)안양 교회	목요일 오전 10시 30분		변요한 신부	010-8886-0046
		zoom 기도	① 매주 화, 수, 목, 금 오전 6시 30분		
			② 수요일 오후 7시30분		
			③ 목요일 오후 7시30분		
원주	봉산동 성당	화요일 오후 2시		조준희 마리아	010-7278-9894
청주	중흥 성당	목요일 오후 2시 30분		안보영 마리아	010-3459-1232
대전	내동 성당 - 성체조배실	수요일 오후 8시		박성숙 헬레나	010-5404-7993
	진잠 성당 - 효경방	목요일 저녁미사후		황경해 아네스	010-6630-6649
	궁동 성당 - 유아실	월요일 오후 7시		황경자 데레사	010-6888-0281
	도룡동 성당 - 성체조배실	월요일 오후 7시		박정옥 소화데레사	010-8804-2160
	월평동 성당 - 성체조배실	수요일 오후 8시		송진희 미카엘라	010-6489-0600
	목천 성당 - 성체조배실	둘째, 넷째 목요일 오후 2시		강기민 로사리아	010-4629-7312
	복수동 성당 - 성체조배실	화요일 오전 10시		배순희 아가다	010-6406-8506
	(세종)성바오로 성당 - 성체조배실	수요일 저녁미사(19:30분)후		강희숙 마리아	010-3256-7317
	*월모임1 월평동 성당- 교육관	매월 셋째 주 토요일 오전 10시 30분 미사 후		박봉석 세례자요한	010-3909-6649
	*월모임2(대전시외) - Zoom기도	매월 셋째 월요일 오후 8시			
	*씨튼 동반회 - Zoom기도	매주 수요일 저녁 9시 - 10시			
부산	해운대 성당	화요일 오후 1시		정예규 아네스	010-3878-9638
	남천동 성당_112호	월요일 오후 1시		송석미 스텔라	010-8306-8280
	부곡 성당	화요일 오후 2시		김귀연 세실리아	010-2322-5690
	범일 성당	화요일 오후 7시 30분		송석미 스텔라	010-8306-8280
	남산 성당	금요일 오후 1시		윤순옥 모니카	010-9880-5005
	민락 성당	금요일 오후 1시 30분		정미례 크리스티나	010-9222-8015
	(울산) 새 예루살렘공동체	화요일 오전 10시 ~ 12시		박경희 마리아	010-8029-6329
대구	황금동 성당	화요일 7시 30분 저녁미사 후		최석완 빈첸시오	010-3526-6611
	계산 성당	토요일 오전 11시		최해자 세라피나	010-3577-0639
	(포항)장성 성당	월요일 오전 10시 30분		정경순 엘리사벳	010-9511-9323
	zoom기도	월요일 오후 8시 *교재_사랑으로의 초대		최해자 세리피나	010-3577-0639
		수요일 오후 8시 *교재_마음을 열고 가슴을 열고			
	(경주) 성동 성당- 성당 2층	일요일 오후 3시		박장동 베드로 류초아 안젤라	010-6477-3223
	수요일 저녁 8시		박창두 미카엘	010-5879-7527	



지역	장소		일시	연락처	전화번호
마산	(진주)하대 성당		월요일 오후 2시	황혜순 율리안나	010-9667-8944
	거제	장승포 성당	화요일 오전 10시	조영순 데레사	010-8531-2764
		옥포 성당	화요일 오전 10시 10분	정현주 글로리아	010-2586-4881
		장평 성당	수요일 오후 6시 30분	주석환 유스티노	010-3193-1896
	(거창)거창 성당		목요일 오후 7시	김정아 아네스	010-5362-4644
	(진해)경화동 성당		① 목요일 오전 10시 30분	박현주 안나	010-9899-8302
			② 목요일 오후 8시	이원숙 헬레나	010-3429-2707
광주	종흥동 성당		① 월요일 오전 10시	장동림 스텔라	010-8845-1493
			② 월요일 오후 2시	이숙희 안젤라	010-8651-1973
			③ 화요일 오전 9시 30분	김금숙 글라라	010-9509-8405
			④ 화요일 오후 1시	송정순 데레사	010-2626-8217
			⑤ 목요일 오전 10시 30분	김혜향 베로니카	010-2604-2072
	문흥동 성당		금요일 오후 7시	임희숙 피데스	010-2699-5309
	금호동 성당		수요일 오전 10시	강연희 릿다	010-8165-7651
	원동 성당		월요일 오전 10시	최옥순 세실리아	010-3999-6331
	비아 성당		화요일 오후 8시	안은경 발렌티나	010-9885-8814
	옥과 성당		월요일 오전 10시 40분	신명희 소피아	010-7348-4491
	익산 성당		금요일 오후 2시	이윤숙 율리아	010-3607-5737
	(순천) 조례동 성당		월요일 오전 10시	박희숙 유스티나	010-4135-1835
	창평 성당		개인	신영애 안나	010-2619-5180
	곡성 성당		개인	최남숙 레지나	010-6780-2754
	강진 성당		개인	이정릉 보니파시오	010-8833-7340
제주	연동성당		금요일 오후 2시 - 3시	김영숙 키어스튼 마리아	010-6685-3516
	*하귀성당 - 월피정		매 홀수달 넷째 금요일 오전 10시 ~ 오후 3시		
	*-ZOOM 독서모임		금요일 저녁 8시~ 9시 30분		
캐나다	(캘거리) 성안나 한인성당		① 매월 첫째 주일미사 후 대면기도 *zoom기도(20분) 주 2회 : 오전반// 저녁반	이상락 프란치스코	E-mail: francisrak@gmail. com
미국	남가주		*zoom기도 둘째, 넷째주 월요일 저녁 8시 *2주일에 한번씩 기도함.	임상도 스테파노	E-mail: Slim7212@outlook. com
	북가주		*zoom기도 매주 월요일 저녁7시 30분	김명완 대건안드레아	E-mail: Myounghwankim@ hotmail.com

한국관상지원단 소식

팬데믹 코로나에도 불구하고 '침묵' 수련을 통해서 하느님께 더 의탁하고 가까이 갈 수 있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어려운 시간을 묵묵히 갈 수 있었던 것은 향심기도 수련 덕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동안 향심기도를 중단하신 회원님들께서도 이제 기도회 봉사자들과 서로 연락을 취하셔서 멈추었던 기도회를 재정비합시다. 은혜와 회개의 시기인 사순시기에 하느님 현존과 활동에 동의하는 여정에 참여하여 부활 대축일을 잘 준비합시다.

'정규완 토머스 아퀴나스 신부'(광주대교구, 향년 84세)께서 2023년 7월 30일 오전 8시 15분에 지병으로 선종하셨습니다. 정신부님께서는 2002년 10월 28일 한국관상지원단이 설립된 이래 2005년 4월 23일까지 초대 대표를 역임하셨습니다. 장례미사는 8월 1일 10시 염주동 성당에서 거행되었고, '담양 천주교 공원 묘원'에 안장되었습니다. 향심기도 회원들께서는 고인이 되신 신부님을 위해 미사와 기도 중에 기억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한국관상지원단 이사회가 2024년 1월 29일 오전 10~12시에 개최되었습니다. 이 회의에서 윤행도 가롤로 신부가 한국관상지원단 대표직을 사임하고(2008년 6월 8일~2024년 1월 29일), 이청준 프란치스코 하비에르 신부가 만장일치로 새로운 대표로 선임되었습니다. 그동안 수고해주신 윤행도 신부와 새로 선임된 이청준 신부(2024년 1월 29일~)를 위해서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한국관상지원단에서는 김병연 사무국장과 미국의 엠헬레나 두 분이 미국관상지원단과 지속적으로 연계활동을 합니다. 김병연 사무국장은 특히 국제관상지원단 번역 그룹에 참여하여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한국관상지원단에서는 매년 12월에는 미국관상지원단으로 후원금 \$1,000을 보내드리고 있음도 알려드립니다.

미국관상지원단 주최로 Zoom기도로 진행되는 '기도 안에 하나되는 날: United in Prayer Day'(한국시간 : 2024년 3월 9일(토) 오전 11시~10일 오전 9시 마침)에 전 세계가 나라별로 연대해서 23시간 기도회를 가졌습니다. 한국관상지원단은 2024년 3월 9일(토) 오후 2시~3시(진행자: 한국관상지원단 사무국장 //김병연 요셉)까지 성직자, 수도자, 평신도가 함께 참여해서 기도와 말씀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 서울 지부 ■

씨튼 영성센터에서, 수녀들 주관으로 입문피정과 후속, 2박 3일 피정 등을 진행하였고, 매일 침묵피정도 진행하여, 일상 속에서 향심기도를 수련하는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중단되었던 주간기도모임도 월2회, 씨튼 영성센터에서 봉사자에 의해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특히 2023년에 이청준 신부의 안식년으로, 인간조건 피정 및 입문피정을 월모임에서 강의하여 개신교 신자들과 서울 지부 향심기도 회원들께 많은 가르침을 전달했습니다. 코로나 이전처럼 완전히 활성화되지는 못했지만, 감사한 한 해였고, 서서히 회복되는 모습에 희망을 가집니다.

■ 인천 지부 ■



〈간석2동 천사복사단 향심기도 피정〉



겨울방학을 이용하여 복사단이 하루피정을 하였다! 몸수련 마음수련을 목적으로 향심기도 피정을 실시하였는데 침묵체험을 통해서 함께하시는 하느님의 현존을 느끼고 일상생활에서 하느님을 만나는 방법을 배운다!



〈간석2동 본당 향심기도 모임〉

조 에우제니아 수녀의 수고로 '간석2동 성당'과 '서창2동 성당' 기도모임 2곳이 더 탄생되었습니다. '소래포구 성당', '만수6동 성당', '청라 성당'과 더불어 현재 5곳이 운영 중입니다. 조 에우제니아 수녀는 2024년 2월에 소임 이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향심기도를 중단하고 계시거나 향심기도에 새롭게 관심을 가지시는 분들은 문의해 주십시오.
(문의 : 인천간사//010-4780-7867)

■ 청주 지부 ■

매주 목요일 2시부터 '중흥성당'에서 향심기도를 재개하오니 그동안 기도를 중단하신 분들은 기도모임에 함께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청주간사// 010-9408-9670)

■ 대전 지부 ■

- 2023년도 활동 현황
 - 2022.7월 8~9일 이청준 신부 주관 "사랑에로의 초대" 피정
 - 매주 수요일 저녁 9시에서 10시까지 씨튼동반회 소그룹 기도회 온라인 진행
 - 월모임 비대면 모임 : 대전시 외곽에 계시거나 거리가 멀어서 대면 모임이 어려운 분들을 위해 (매월 셋째 월요일 오후 8시)
- 2024년도 활동 계획
 - 대전교도소(대정공소) 향심기도 소그룹기도회 2024년 2월부터 시작할 예정.(매월 둘째 목요일 14:30부터)

■ 광주 지부 ■

- 1. 월 채신의 날(매월 첫 월요일: 9:30~16:00)

- 1/9 윤행도 신부(참석: 46명) : 〈신앙의 위기 사랑의 위기〉
- 2/6~8(3일) 이청준 신부(참석: 총 53명) : 〈중독과 신적치유〉 1부
- 3/6~7(2일) 이청준 신부(참석: 총 70명) : 〈중독과 신적치유〉 2부: 피정 및 교육
- 4/3 김민석 신부(참석: 49명) : 악한 생각과의 싸움
- 5/1 김영선 수녀(참석: 48명) : Lectio Divina 방법
- 6/12 김민석 신부(참석: 28명) : 기도 및 Lectio Divina
- 7/3~4 이청준 신부(참석: 63명) : 향심기도 입문후속 1, 2강
- 8/7 이청준 신부(참석: 56명) : 후속 3강
- 9/11 이청준 신부(참석: 54명) : 후속 4강
 - * 관상을 통해 하느님께 나아가는 길, 인간 조건(유인물)
- 10/2 이청준 신부(참석: 49명) : 그리스도교의 관상기도 전통
- 11/7 आय회 및 성지순례(참석: 29명) : 초남이성지 순례 및 미사
- 12/4 총회 및 정규완 신부 추모의 날(참석: 28명)
 - * 정규완 신부 장례미사(2023.7.30. 선종): 김관수 신부 강론 다시 듣기.
 - * 정규완 신부 유언(제목: 우리의 동의를 구하시는 하느님) 묵상 및 긴 연도.

2. 피정 및 교육

1) 피정

- 서귀포 면형의 집(1/16~18/2박3일, 5명 참석)
- 논산 씨튼영성의집(3/17~19/2박3일, 5명 참석) : 향심기도 입문 및 후속
- 논산 씨튼영성의집(5/31~6/9/9박10일, 4명 참석) : 중독과 신적치유
- 성북동 씨튼영성센터(8/4~6/2박 3일, 2명 참석) : 사랑에로의 초대
- 인제 다물피정의집(8/15~23/7박8일, 3명 참석) : 향심기도 후속강의

2) 교육

- 요한병원 알콜중독센터 교육에 4명 참가: 중독과 신적치유(4/24~25)
- 향심기도 입문 개인교육 : 총 8회 13명

◆ 순천지회 연간계획 ◆

피정	일시	장소	내용	행사	신청자격
1월 월 피정	1월 08일	(순천) 순례동 성당	월 채신	김관수 시몬 신부	
	2월 12일		렉시오 디버나	박희숙 유스티나	
	3월 11일		렉시오 디버나	박희숙 유스티나	
	4월 8일		아우회	향심회원 일동	
	5월 13일		(중흥동) 월 채신의 날	윤행도 신부	
	6월 10일		렉시오 디버나	박희숙 유스티나	
	7월 08일		렉시오 디버나	박희숙 유스티나	
	8월 05일		(중흥동) 월 채신의 날	이청준 신부	
	9월 09일		렉시오 디버나	박희숙 유스티나	
	10월 14일		성지순례(장소·고성)	향심회원 일동	
	11월 11일		렉시오 디버나	박희숙 유스티나	
	12월 09일		회계보고 및 연간계획	대표, 총무	

■ 대구 지부 ■

1. 2023년도 대구, 경북지역 활동내용:

- ㉔ 2023년 2월 9일-향심기도 소개 피정(대구 한티순교 성지 _ (봉사)이청준신부
- ㉕ 2023년 2월 13일, 15일 대구, 경북지역 향심기도 줌 시작~ 현재 진행중 매주 수요일, 금요일 저녁8시-교재 마음을 열고 가슴을 열고 2024년1월부터 월요일 교재-사랑으로의 초대 수요일 교재-마음을 열고 가슴을 열고 진행중
- ㉖ 2023년 2월17(금)~19(일) 2박3일 향심기도 소개 및 심화피정
- 대구사수동 베네딕도 영성관(봉사_이청준 신부)
- ㉗ 2023년 3월 14일 대구 계산성당 주최 : 향심기도 소개강의(봉사_이청준 신부)
- ㉘ 2023년 5월 6일 대구 계산성당 주간모임 시작
- ㉙ 2023년 7월 27일 - 30일 '성령의 열매 와 은사' 3박 4일 피정(봉사_이청준 신부)
- ㉚ 2023년 9월 9일 - 포항 장성성당 향심기도 1일 소개 피정(봉사_이청준 신부)
- ㉛ 2023년 10월 14일 대구 계산성당 주간 모임-이청준 신부 방문
- ㉜ 2023년 12월 16일(토)-18일(2박 3일 월피정) '사랑 의로의 초대'(봉사_이청준 신부)
- ㉝ 2023년 12월 28일(목) 포항 장성성당 주간모임(이청준 신부 방문)

2. 2024년 대구지부 피정 예정일정

2024년 8월 19-21일 (월~수, 2박3일) 주제 미정(봉사_이청준 신부)

*장소 : 대구 사수동 베네딕도 영성관

■ 마산 지부 ■

코로나 팬데믹 여파로 아직도 기도모임이 원활히 이뤄지고 있지 않습니다. 2024년 상반기 마산교구 사파동 성당(봉사_이청준 신부)에서 향심기도 입문과정인 낮반(3/11, 4/8, 5/13, 6/3, 6/24, 매주 월요일 오전 10시~오후 4시, 5회 강의)과 저녁반(4/8, 4/29, 5/13, 6/3, 6/24, 7/1 월요일 오후 7시 30분 - 9시 30분, 6회 강의)으로 재개됩니다. 향심기도에 관심을 가지신 분들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황혜순 간사//010-9667-8944)

■ 부산 지부 ■

3년동안 코로나로 기도회를 중단하다가 2022년 5월부터 기

도회를 재개해서 각 본당의 여건에 맞춰서 기도모임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화명성당은 기도모임이 없어졌습니다. 현재 부산지부에는 7곳(해운대, 남천동, 부곡, 범일, 남산, 민락성당, 새예루살렘공동체)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향심기도 주간 기도모임에 다시 동참하실 분들은 문의해 주십시오.(문의 : 부산간사 // 010-9325-0006)

■ 울산 지역 기도모임 ■

울산 지역 기도모임(매주 화요일 오전10시~12시//봉사자: 박경희 마리아 010-8029-6329)은 새예루살렘 공동체에 서 왕영수 신부와 8~10명의 회원이 모여 미사참례와 기도,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2024년 2월24일~25일 기도 회원 12명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되리라' (박재찬 신부 지음)를 공부하고 대구 왜관 베네딕도 수도회에서 박재찬 신부의 강의를 들으며 1일 피정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 제주도 지역 ■

1. 2023년도 피정<연피정>

- 서귀포 면형의 집(2023년 1월 16~18일, 27명 참석) <성령의 열매와 은사> • 강사: 이청준 신부
- <월피정>
- 2023년 11월 8일 수요일 10~15시 : 기도 및 <주의 · 지향 40일 수련> 독서 나눔 (장소 : 제주시 하귀성당)

2. 2024년 피정

<연피정>

- 서귀포 면형의 집(2024년 1월 5~7일, 2박3일, 36명 참석) <중독과 신적치유> • 강사: 이청준 신부

3. 온라인 향심기도와 독서모임 :

2024/3/1 (금요일) 저녁 8시 시작 예정. 저녁 8시 20분까지 기도 후 저녁 9시 30분까지 <마음을 열고 가슴을 열고> 독서와 나눔 예정.

<온라인 그룹공부>

매주 금요일 저녁 8시~9시30분 "네이버웹일(온라인 화상프로그램)"으로 그룹 공부 실시.

오후 8:00~8:20 : 향심기도

오후 8:20~9:30 <성령의 열매와 은사>, <중독과 신적 치유> 공동 낭독 후 나눔.





***〈공지사항〉 한국관광지원단 사무국에서 공지합니다!!!!**

- 2024년 9박 10일 집중피정(6월 19일 오후 4시 등록~6월 28일 점심식사 후 마침)을 하실 분들은 5월 1일 오전 10시부터 접수(선착순// 25명)를 받을 예정입니다.
- 2024년 3박 4일 향심기도 봉사자 피정(11월14일(목) 오후 3시 30분 시작~17일(일) 점심식사후 마침)이 있습니다.

**한국관광지원단 사무국 대표전화(043)238-1968)로 참가 신청을 받습니다.

| 지부 간사 명단 및 연락처 |

• 사무국장 김병연 요셉	010-2948-3852
• 서울지부 한명숙 카타리나	010-8553-2374
• 인천지부 강경애 세실리아	010-4780-7867
• 대전지부 박봉석 세레자 요한	010-3909-6649
• 청주지부 연인래 아가다	010-9408-9670
• 마산지부 황혜순 율리아나	010-9667-8944
• 부산지부 류건희 아녜스	010-9325-0006
• 대구지부 최해자 세라피나	010-7795-0639
• 광주지부 장미자 데레사	010-3632-0237

※ 문의 사항이 있으신 분들은 지부 간사에게 연락하십시오.



후원 회원 가입안내

한국관광지원단은 매일의 삶에서 복음의 관상적 차원을 살아가기로 투신하는 개인과 향심기도 그룹이 이루는 공동체입니다. 많은 현대인들에게 그리스도교 전통 관상기도가 보급될 수 있도록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1. 가입방법 : 010-3993-3800으로 전화를 주시거나 또는 이메일 koreacontout@naver.com으로 가입자의 성명, 주소, 전화, E-mail등을 알려 주십시오.

2. 자동이체 납입방법 : 은행으로 납부하는 경우 인적 사항을 이메일이나 전화로 꼭 알려주십시오.
(우리는행 : 1006-701-302826 예금주 : 한국관광지원단)

3. CMS계좌 신청 : 전화나 이메일로 연락주시면 신청서를 보내드립니다.

◆ 소식지가 개별로 필요하신 분은 주소 또는 E-mail주소를 알려주시면 소식지를 보내드리겠습니다.

